

## 서울특별시



이성모

### 1. 들어가는 말

민선4기의 지자체 단체장을 선출한 지난 5·31지방선거는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존의 네거티브 선거풍토에 일대 혁신적 변화를 시도한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이란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였다. 그 내용은 후보자는 목표, 우선순위, 절차, 기간, 소요재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이의 가능성이나 실현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점검한 후 후보를 선택하자는 운동으로 이는 영국이나 일본에서 널리 퍼져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거 때마다 지역현안이나 주민이 원하는 사안을 공개적으로 표방하여 실현하게 하는 기회이기도하고 또 시민들이 지킴이로서 주인의식을 회복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간 우리나라의 기존 선거풍토에서는 출마자가 내건 공약을 걸러낼 장치가 없었거니와 이에 대응할만한 시민의식의 부족과 무관심으로 출마자는 인기 영합주의적 공약이나 기회주의적 말잔치로 '아니면 말고'라는 구호적 성향이 강한 공약으로 당선 지향적 만능으로 흘렀으며 당선 후에는 공약에 대한 책임의식이 퇴색된 경향이 없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이 선진 제외국에

서도 없지 않았으나 당선자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공인으로서의 의무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여 공약실천에 대한 책임성이 자리를 굳혔으나, 우리나라는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제기되었던 매니페스토운동이 이의 한 사례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민의식이 성숙함하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으며 기존 구호만 난무하던 선거풍토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바람직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향후 사회정화의 한 축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이 기존 선거에서 구호성향적 선거공약을 실천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재 조율하는 등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사항에 대해 책임감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매니페스토운동 차원에서 민선4기의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천성을 점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민선4기 서울시정 목표

시정목표는 서울시장이 임기내 서울시의 민생부문, 도시발전 등 인문환경, 사회환경, 자연환경, 지·정학적 환경 등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정책을 대변하는 것으로 시장의 철학과 전략, 포부가 녹아있는 최상위 목표라 할 수 있다.

우선 서울시의 민선4기 시정목표를 살펴보면 '세계일류 매력도시 서울'이 곧 '대한민국 경쟁력'이란 캐치플레이 아래 크게 3부문으로 구분하여 3强, 3淸, 3富로 대변되는 소위 3×3C 정책으로 표현한 '경쟁력 있는 서울(3强-3C)', '맑고 쾌적한 서울(3淸-3C)', '풍요로운 서울(3富-3C)'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력 있는 서울(3强-3C)'에서는 '문화부문의 경쟁력 강화', '도심 부활을 통한 경쟁력 강화', '창의력 제고를 전제한 경쟁력 강화'를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3强으로 하였으며 부문별 구체적인 내용은 영문 이니셜로 표현되는 3C로 '문화경쟁력이 강한 도시(Cultural Competitiveness)', '도심경쟁력이 강한 도시(CBD Competitiveness)', '창의력이 강한 도시

(Creativity Competitiveness)'라는 목표하에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문화 일류도시 서울', '강북도심 부활 프로젝트', '동아시아에서 세계로 열린 서울'을 지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아래 각 분야별 공약과 단위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둘째, '맑고 쾌적한 서울(3淸-3C)'에서는 '도시환경이 깨끗한 도시', '깨끗한 시정', 그리고 '서울시의 수장(首長)으로서의 청렴성'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3淸으로 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도시(Clean & Convenient City)-서울',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Clean & Clear Government)', '깨끗하고 소신있는 시장(Clean & Consistent Mayor)'이라는 목표하에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환경일류 도시 서울', '대중교통중심의 다양한 교통서비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 '투명행정 일류도시 서울', '시민에게 열린공간 만들기' 등을 주 내용으로 하여 이 아래 각 분야별 공약과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풍요로운 서울(3富-3C)'에서는 '서울시민의 보다 나은 생활', '서울 강남·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전제로 지역사회의 조화로운과 공동성과 상부상조에 초점을 맞춘 내용을 3富로 하여 '풍요로운 서울시민(Citizen with the Higher Living Standard)', '균형발전하는 강·남북(Community with the Balanced Development)', '함께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Charity Society with Interdependence)'라는 목표하에 '균형발전으로 강·남북이 열린 서울',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교류와 협력으로 지방에 열린 서울' 등을 주 내용으로 하여 이 아래 각 분야별 공약과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의 공약사항은 실천성에 비춰 볼 때, 즉시 실천이 가능한Ⅰ타입, 1년 내 착수가 가능한Ⅱ타입, 임기내 착수·완료 가능한Ⅲ타입, 임기내 착수가 가능한Ⅳ타입, 장기검토 공약을Ⅴ타입 등 5가지 타입으로 구분된다. 이 5가지 타입을 분야별로 구분하면 11개 분야로 구분되며,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총 101개 공약에 265개 단위사업으로 세분된다. 타입Ⅰ에는 68개 단위사업이, 타입Ⅱ에는 26개 단위사업이, 타입Ⅲ에는 108개 단위사업이, 타입Ⅳ에는 58개 단위사업이, 마지막 타입Ⅴ에는 5개 단위사업으로 총 265개 단위사업으로 세분되며 유형별 주요 공약사항별로 분류기준 및

항목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 공약사항의 유형별 분류기준 및 항목별 내용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선4기 공약사항은 5개 유형에 11개 분야 101개 공약사항에 265개의 단위사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크게 3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강북도심 부활, 역사성과 문화 창출, 환경개선, 행정의 투명성측면에서 이들 4개 사안을 포함하여 '세계일류 도시 서울'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로, 시민들의 휴식과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친화적인 열린 공간 조성, 강남·북의 균형발전으로 차별 없는 열린 서울 창출, 서울과 지방이 교류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열린 서울, 기존 동북아에 머문 서울의 위상을 세계로의 확장을 위한 장을 선도할 수 있는 등 4가지 사안을 포함해서는 '열린 서울 만들기'부문으로 분류된다.

셋째로, 서울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과 치안 등 안전한 삶이 보장될 수 있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 교통문제해소와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중교통 중심의 다양한 교통서비스', 장애인,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복지서비스 등의 3가지 사안을 포함해서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위의 세부문을 세부항목별 개수를 보면, 첫째부문인 '세계일류 도시 서울'에는 강북도심 부활 프로젝트에 5개 공약사항에 14개 단위사업이, 문화 일류도시 서울에는 4개 공약에 24개 단위사업이, 투명행정 일류도시 서울에는 8개 공약에 17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31개 공약에 89개 단위사업으로 구분된다. 둘째부문인 '열린 서울 만들기'에는 시민에게 열린 공간 만들기에는 3개 공약에 9개 단위사업이, 균형발전으로 강남·북이 열린 서울에는 13개 공약에 35개 단위사업이, 교류와 협력으로 지방에 열린 서울에는 5개 공약에 10개 단위사업이, 동아시아에서 세계로 열린 서울에는 13개 공약에 23개 단위사업으로 총34개 공약에 77개 단위사업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꿈과 희망의 서울'에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에는

3개 공약에 17개 단위사업이, 대중교통중심의 다양한 교통서비스에는 9개 공약에 18개 단위사업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는 24개 공약에 64개 단위사업으로 총36개 공약에 99개 단위사업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공약수와 단위사업의 수를 기준으로 보면 부문별 공약사항에서는 31개에서 36개로 큰 차이는 없으나 단위사업수를 보면 복지부분이 24개 공약에 64개로 단위사업으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 4. 공약사항의 부문별 세부항목 및 단위사업 내역

전술한 바와 같이 각 공약사항은 그 성격과 시설확충과 같은 물리적 또는 그 소프트웨어적 매카니즘 등을 고려할 때 동일 부문의 공약사항이더라도 담당부서의 역할에 따라 동일 공약사항의 타단위사업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도 있으며 또 다른 공약사항의 단위사업과도 연관성이 있는 중복성 사업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1) 세계일류도시 서울

###### (1) 강북부활 프로젝트

###### ① 청계천을 중심으로 한 남북축의 거점 육성

이 사업은 청계천을 중심으로 남북방향 간선가로축별로 구상하는 사업으로 우선 남대문에서 경복궁 역사문화 거리 조성, 명동에서 인사동으로 이어지는 관광 문화거리 조성, 세운상가 주변 재개발 사업추진, 세운상가 및 대림상가 철거 후 녹지공간 확보와 쾌적한 도심환경조성, 국립극장에서 동대문구간까지 수변공원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의 사업으로 구성됨

###### ②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심재개발 사업)의 지원 및 촉진

여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전담공무원제 도입, 인·허가 절차 및 기간단축(검토 및 협의기간 설정),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통한 재정지원 확대(도시환경정비사업 계정), 그리고 본 항목을 적용한 세운상가 및 대림

상가 철거 후 녹지공간 확보와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등의 사업으로 구성됨

③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으로 종합문화공간을 조성

이는 동대문 운동장을 지상과 지하부로 구분하여 지상부는 녹지축연결과 역사복원, 광장조성 등으로 활용하고 지하부는 패션문화시설, 패션디자인센터, 공연장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성됨

④ 문화 여가공간의 확대

이는 공공의 역할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이전적지의 문화·여가공간 활용방안 모색으로, 여기에는 정부종합청사 등의 공공기관, 학교, 공장 등의 대규모 이전적지에 대한 계획적 합리적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내용, 동대문 패션산업과 인쇄산업 육성지원, 서울형 신산업의 육성-충무로 일대의 영상산업, 낙원상가 철거 정비와 세운상가 및 대림상가 철거 후 문화·여가공간 확보하는 등의 사업으로 구성됨

⑤ 서울시청 신청사의 관광 명소화

새로 건립되는 시청사를 서울광장, 청계광장과 같이 연계하여 관광명소화와 서울의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성됨

(2) 문화 일류도시 서울

① 북촌마을 복원

북촌마을의 물리적 복원과 더불어 전통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경복궁~북촌마을~인사동을 잇는 전통문화의 네트워크화와 문화벨트 조성, 돈의문 복원으로 인(홍인지문) 의(돈의문) 예(송례문) 신(보신각)의 정신복원, 조선시대의 6조(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복원, 궁궐주변의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 사업 추진, 정부청사 및 기관부지 이전에 따른 역사 문화 복원, 종묘대제, 과거시험, 전통혼례식, 연등축제 등의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전통문화예술인의 육성지원 등의 사업으로 구성됨

② 달한 문화에서 열린 문화로

대학로 확장, 길거리 및 지하철역사 등 문화공간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하이 서울 페스티벌 등 서울 상징문화축제의 세계화, 문화콘텐츠

사업의 지원, 문화정보의 홍보 강화, 서울을 상징하는 고부가가치 문화상품 및 브랜드 개발, 문화올림픽이라 일컬을 수 있는 국제간 문화교류의 장 개설, 문화취약지역의 문화인프라 확충, 저소득층 문화활동 적극지원, 소극장 공간확충을 통한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학교 및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한 문화커뮤니티 조성, 한강 및 중소하천을 지역문화공간 마련 등의 사업으로 구성됨

③ 시설위주에서 문화프로그램 위주로

문화콘텐츠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사업 지원, 생활속의 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차원의 문화 예술작품 보급 지원 등의 사업으로 구성됨

④ 지역특색과 경제활동을 문화산업으로 육성

대학로, 동대문~국립극장, 명동~인사동~북촌마을, 남대문~덕수궁~경복궁~창덕궁, 홍대앞, 이태원~한남동 등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거리 조성, 문화이벤트 활성화 등의 사업으로 구성됨

(3) 환경 일류도시 서울

① 교통환경 개선, 수돗물, 녹지공간, 생태축 조성, 환경총량제 등

어린이 사고율 제로 'Safety Zone' 조성,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실시 및 기능개선, 수돗물을 맛있게, 고도정수처리, 자전거 조례제정, 오염이 심한지역의 차량진입 제한 또는 교통환경부담금 부과 검토, 녹지공간 확대를 위한 가로숲 조성, 시유지의 불필요한 아스팔트제거 및 녹지화, 한강시민공원의 생태공원화, 하천배후 습지 조성 및 연계체계 조성, 환경총량제 도입 등의 사업으로 구성됨

② 공해저감차량으로 교체 및 운영확대, 저공해기술 개발 유도

시내버스 등의 교체시 CNG차량으로 대체, 저공해차량 운영확대 추진, 자동차 생산 초기단계 저공해기술 개발 유도 등의 사업으로 구성됨

③ 저공해자동차 보급지원 및 공해저감장치(DPF, DOC)부착 지원,

특정경유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서울시 관용차량 및 공공차량 공해저감 차량으로 교체 등의 사업으로 구성됨

④ 위의 2. 3. 공약사항 유사하거나 중복되나 담당 부서가 다름

- ⑤ 자동차 수요관리 정착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정착, 경기도 유입차량 감소 대책 등의 사업으로 구성됨
- ⑥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공해자동차정기설치와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및 시민경보체계 확립  
대기오염도 측정 강화, 실외활동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정보 시스템 구축, 오염이 심한 지역 차량진입 제한 또는 교통환경 부담금 부과 검토 등의 사업으로 구성됨
- ⑦ 교차로 등 공해지역 공기정화플랜트 시범 설치  
공기정화플랜트 등 대기오염 저감장치를 개발하여 교차로 등 공해지역에 시범 설치후 확대 방안 등의 사업으로 구성됨
- ⑧ 도로변 먼지 저감  
도로변 물청소차량 운행확대, 종로 등 다중집합지역의 보도변에 자동세척장치 설치 등의 사업으로 구성됨
- ⑨ 공사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 강화방안  
공사착공시의 먼지 저감을 위한 계획 및 관리방안의 감독, 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기준 및 실행 계획 마련 등의 사업으로 구성됨
- ⑩ 녹화사업으로 공기정화(공원녹지 정책과 병행)  
생활권 공원 면적의 확대, 모든 공지내 나무심기 운동 전개 등의 사업
- ⑪ 자전거 네트워크의 확충 및 지하철내 자전거 이용 가능한 설비 구축  
6호선 등 비 첨두시 시범실시방안, 강남·북의 단절된 자전거 네트워크 확충, 도심내 쇼핑관광을 위한 보행자동전용도로 확충 등의 사업
- ⑫ 위의 6.항과 중복되나 담당 부서가 다름
- ⑬ 자동차 검사 기능 강화 : 녹색교통인증마크 부착
- ⑭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환경정책 추진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제거 및 빈터 나무심기, 옥상녹화의 지속적인 확대, 에너지 수요관리체계의 수립,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보급, 자동차 연비향상대책,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건립, 친환경에너지 시범사업 실시 등의 사업



(4) 투명행정 일류도시 서울

- ① 시장-행정(공무원)-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반부패 시스템 구축
- ② 공무원 전원의 반부패 서약  
반부패 분위기 조성 및 확산, 청렴윤리 의식 함양을 위한 반부패교육 실시, 기관 및 개인의 청백리상 확대실시 등의 사업
- ③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분야 확대  
공개대상 업무확대 및 운영효율화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부조리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사업
- ④⑤⑥ 청렴계약 옴부즈만 제도의 확대실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 건설공사 입찰 및 선정과정의 시민 및 시민단체 참여, 관민의 투명사회협약체결로 부패유발환경 개선 및 반부패 사회분위기 조성 등의 사업
- ⑦⑧ 부정방지를 위한 각종 시스템 보완, 구축 및 재점검  
기 운영 중인 부정방지 내부통제시스템의 지속적인 보완 및 추진으로 반부패체계 개선·발전, 윤리행정진단 및 평가시스템 재점검/보완/구축, 공정거래시스템 확대-인터넷 활용을 통한 전자조달 확대 및 공동구매시스템 확대, 시민지원(CRM) 시스템구축, 행정업무혁신(BPM)을 통한 서울시 윤리행정 구현, 시민감사제도의 활성화, 부패신고 포상확대, 시민감사관 확대 운영, 실질적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전담부서의 상설화 등의 사업

2) 열린 서울 만들기

(1) 시민에게 열린 공간 만들기

- ① 열린공원 만들기  
강북지역 미시설공원의 공원화 사업으로 여가공간의 지속적인 확대, 어린이 대공원의 무료개방, 동네 마을공원 가꾸기 사업 등의 사업
- ② 한강의 접근로를 다양하게 구성  
한강과 인접한 도시철도역사에서 보행전용도로 설치 및 대중교통접근의 용이성 확보 및 연결통로 확충, 여가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한강

고수부지에 나무심기, 권역별 테마 계획 등의 사업

- ③ 열린 학교 만들기 : 학교공원화 사업으로 주민운동공간으로 개방

## (2) 균형발전으로 강남·북이 열린 서울

### ① 지역별 특성화에 따른 중점사업 육성

도심권 중점 육성 사업으로 패션 등 서울형산업 육성, 첨단국제업무지구 육성, 청량리·왕십리 등 동북권, 강남부도심 중심의 동남권, 상암·수색 부도심 중심의 서북권, 영등포·여의도 부도심 중심의 서남권, 용산 부도심권 등의 중점 육성 사업

### ② 뉴타운 및 강북 활성화

뉴타운과 주변지역을 포함한 주택마스터플랜 작성, 광역적 뉴타운 지구 지정, 재개발·재건축의 인허가 행정절차 개선, 뉴타운 기구 및 도시재정비를 위한 기구 개편, 뉴타운지역내 공공의 역할 증대, 뉴타운사업의 고도화 등의 사업

### ③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공급,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화, 도심공동화 방지 및 직주근접의 도심임대주택 확보, 전세자금 지원기준 완화 및 대출절차 간소화, 다자녀가정 지원기준완화 등의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확대 등의 사업

### ④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열린 동네 기꾸기

Green Parking사업개념을 확대한 열린 동네 기꾸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지역 개선, 기존 단독 및 다세대 주택지 정비,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위한 통과교통억제와 보행안전대책 수립, 공공주차장 확보 지원대책 등의 사업

### ⑤ 민관 협력 자립형 사립고교 육성, 시범공립학교 육성, 영어체험 마을 건립(서남권, 서북권 1개소씩 추가)

### ⑥ 학교지원 커뮤니티 구성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신문고 설치, 학교운영협의회의 내실화, 열린학교 만들기, 교육환경 개선, 학교주변 및 교육시설 개선 등의 사업

### ⑦ 초·중·고교의 방과 후 학생교육프로그램 작성 및 특기교육 실시

- ⑧ 미시설공원을 활용하여 문화환경이 복합된 시설 확충  
25개 뉴타운 지역내 공공용지 확보 및 문화시설 건립, 학교 동사무소가 결합된 문화공간 확보 등의 사업
- ⑨ 25개 구민회관 및 문화시설의 공연정보 체계 구축
- ⑩ 구민회관 활용 초·중생대상 저렴한 예술교육
- ⑪ 공동재산세 추진 등 시세와 구세의 합리적 조정
- ⑫ 자치구의 재정능력을 감안한 교부금 비율 조정
- ⑬ 강북 뉴타운 사업의 재원 집중 투자

(3) 교류와 협력으로 지방에 열린 서울

- ① 수도권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협의체 구성  
광역교통체계개선, 광역급행버스 신속 추진 및 신분당선 조기완공 지원, 서울경계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주택문제해소를 위한 계획단계의 협의, 뉴타운사업의 행정체제 및 계획방법 이전 등의 사업
- ② 쓰레기, 자원회수시설, 혐오시설의 공동건설 및 공동이용 추진, 지방하천의 오염 및 환경 개선
- ③ 농업개방에 따른 지원체계확립  
우리 농산물 인증제도, 친환경 농업 지원, 우리 농산물 유통·물류체계 개선 지원 등의 사업
- ④ 서울시의 도시정책 및 선도행정 사례의 지방 소개  
도시계획, 재개발, 재건축의 선행경험 소개 및 협의 강화, 서울시 전자정부 모델홍보·마케팅 및 무상이전 등의 사업
- ⑤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수도권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과 발전을 위한 대체입법 마련 등의 사업

(4) 동아시아에서 세계로 열린 서울

- ① 비즈니스산업의 육성지원  
벤처기업 또는 서울형 신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체계 구축, 비즈니스 산업 집적 및 네트워크 촉진 기반 구축

### 등의 사업

- ② 서울 도심의 600년 역사·문화의 관광 자원화  
상기 2)의 (2)와 유사함.
- ③ 의료산업의 마케팅화
- ④ 서울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  
준공업지역의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업종 전환, 자생적 산업지구의 특화, 여의도의 동북아 국제금융 거점도시로의 육성 등의 사업
- ⑤ 대중교통 수단 및 공공기관 등에 U-서비스 제공, GPS이용 범위 확대 실시
- ⑥ 지식기반산업지구의 성장 지원  
지식기반산업지구 확정, R&D 연구지역 육성, 지적소유권, 기술거래에 수반되는 법률지원 센터 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 등의 사업
- ⑦ 지식기반산업지구 확장 및 지원 강화  
마곡 R&D시티 조성 및 추진으로 IT, BT, NT의 첨단 융합 기술개발 활성화 및 국제업무유통단지 조성, 상암 DMC 조성 연계산업 활성화, 구로 서울디지털 산업 단지 활성화 등의 사업
- ⑧ 용산역 일대 국제업무지역 지정
- ⑨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건립 지속 추진 등 다국적금융 기업 및 국제경제기구 유치 활성화
- ⑩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
- ⑪ 서울경제공사 설립
- ⑫ 동북아 허브도시로서의 접근성 향상
- ⑬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경영 업그레이드 지원

### 3) 꿈과 희망의 서울

#### (1)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

- ① 수돗물과 관련된 사항  
하수처리수의 상수원 유입 원천 봉쇄 및 선진사례 도입 등과 같은 깨끗한 상수원 확보, 비상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수돗물 생산기관과 수질검사

기관 분리, 옥내 배관공사 관리 강화,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충 등의 사업

- ②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  
상기의 3)(2)의 3항과 동일한 사업
- ③ 지하철 역사의 안전, 아동보호, 치안서비스 등사회 안전망 관련 사항  
지하철역사 스크린도어 설치 확대 및 조기설치, 범죄, 사고로부터 아동  
보호시스템구축,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치안서비스 강화, 정보화기술  
을 통한 사회안전 시스템 구축, 가정 및 성폭력 근절대책과 사후지원,  
자연재해 및 테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시정운영 등의 사업

## (2) 대중교통 중심의 다양한 교통 서비스

- ①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및 버스의 고급화, 교통카드 호환 관련 사항  
상기의 2).(2).1.항과 동일, 개량버스의 쾌적화, 교통카드 경기도와 상  
호호환 시스템구축 등의 사업
- ② 다양한 신교통수단(경전철, BRT, 모노레일 등) 도입
- ③ 수도권 진입차량의 대처와 환승센터 설치관련 사항  
환승센터 설치, 수도권 진입차량 저감 프로젝트 추진, 광역전철조속 추  
진정부와 협의 등의 사업
- ④ 배회차량 개선등 택시와 관련 사항
- ⑤ 고속도로 등 연결로 확충
- ⑥ 도로소통상태 정보제공 시스템 개발
- ⑦ 상습정체구간, 도로구조 개선
- ⑧ 도심권 부설 주차장 설치 제한 및 차 없는 거리 확대 시행
- ⑨ 서울메트로 시스템 개선, 혼잡 역사 개선 등 지하철 개선 사항

## (3)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 ① 여성/보육 서비스  
가임여성의 임신여부 무료 확인, 출산에서 보육까지 성장 프로그램 개  
발, 임신-출산-보육에 대한 기초정보 제공 서비스, 안심보육센터 신설,  
선진형 보육시스템 도입, 공인 베이비시터제 도입 등의 사업
- ② 1개동 1개 공공보육시설 확충

- 동사무소·학교 등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보육시설 확충, 공공기관 및 시설을 활용한 시간제 보육시설 확충, 직장내 보육시설 확충 및 민간의 적극적인 유도책, 방과 후 아동보호 및 교육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
- ③ 보육시설 개선 및 교육기자재 질 확보, 보육교사 인건비 및 복리증진
  - ④ 상기 1.항의 베이비시터제 도입과 관련
  - ⑤ 노인 복지 서비스
 

질병에 대응하는 노인 복지, 노인전문 병원 및 치매 요양원 건립, 독거 노인 전담제 마련, 자치구별 노인복지 위원회 설치 등의 사업
  - ⑥ 노인 취업 관련 사항
 

실버취업 박람회 활성화, 노인 취업활동 지원, 고급·전문노인 이력 활용방안 등의 사업
  - ⑦ 즐길 수 있는 노인 복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확대, 노인 체육시설 건립, 실버 아파트 보급 확대 등의 사업
  - ⑧ 장애인 복지 서비스 : 한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원
 

저소득 장애인 거주공간 확충, 장애인 가족단위 단기보호시설 확충 등의 사업
  - ⑨ 장애인 복지 서비스-찾아가는 복지 실현
 

재가서비스 봉사센터 및 봉사원 대폭 확충, 장애인 콜택시 및 무료 셔틀 버스 확대 보급 등의 사업
  - ⑩ 자립·재활을 통한 장애인 생활 안정
  - ⑪ 장애인 접근 및 이동체계 개선
 

문턱 없애기 운동, 청계천 장애인 접근성 개선, 이동권 확보 등의 사업
  - ⑫ 장애인 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
  - ⑬ 저소득층, 소외계층 지원 서비스 : 경제적 지원확대
  - ⑭ 저소득층, 소외계층 지원 서비스 : 자활프로그램 활성화
  - ⑮ 저소득층, 소외계층 지원 서비스 : 주거 및 복지시설 지원
  - ⑯ 저소득층, 소외계층 지원 서비스 : 보건/의료시설 내실화
  - ⑰ 여성일자리 창출 및 종합 원스톱 취업센터 설립, 여성취업박람회 정례 개최 등
  - ⑱ 가족관련 사항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지원 강화,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지원 강화, 긴급구호시스템 핫라인 확보 등의 사업

⑲ 공직사회 여성참여 비율 확대

⑳ 가족문화 관련 사항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 시스템 도입, 가족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의 사업

㉑ 조례제정을 통한 장애인 사회 참여기회 보장

㉒ 장애인 수당 현실화

㉓ 장애인 긴급구호시스템 구축

㉔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지속적 장애인 복지 실현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 현실화, 복지전담 공무원제 도입 등의 사업

## 5. 공약사항 검토 결과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서울시 민선4기의 공약사항의 분류는 실천 또는 착수·완료 시점에 따라 5가지타입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시정목표에 따라 지향하는 이슈별로는 3개 부문에 10개 사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또한 공약의 부문별 중복성도 없지 않으나 이는 시설 확보 등과 같은 물리적 측면과 운영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담당 부서의 차이에 기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본고에서는 매니페스토 차원에서 시정목표에 따라 지향하는 이슈별로 검토하는 것을 전제하였다.

### 1) 세계일류도시 서울

#### (1) 강북부활 프로젝트

강북부활 프로젝트는 전술한 바와 같이 5개 공약사항에 14개 단위사업으로 주로 청계천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이어지는 간선가로축을 중심으로 역사성 회복과 문화환경 및 공원·녹지환경과 관광문화벨트 조성하여 도심기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사항은 청계천을 중심으로 남북축별 거점 육성을 위한 공약이다. 이는 서울 강북의 역사성과 문화환경과 녹지공원 환경창출로 환경친화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침체된 강북도심을 활

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 과제라 판단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운상가 및 대림상가 철거 후 녹지공간 확보와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사업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민원사항해결 방안이 가장 큰 난제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민원 사항 중 시설소유자는 인근블럭을 통합하여 동시에 재개발 등의 기법으로 용적을 상향조정에 따른 지분을 제공하면 해결이 가능하나 세입자문제는 여전히 미지수다. 또한 남북축으로 주간선 가로의 기 개발지역은 도로폭원 확보 등의 문제가 내재하고 있다. 또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소예예산이 6천억원 규모이며 대규모 시책사업의 서울시 입안, 구역결정, 각종심의 병행처리 시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는 임기내 착수는 하되 예산확보 등 각종현안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장기지속사업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대문 운동장의 종합문화공간 조성은 민자유치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나 품물 시장 처리문제 등이 있다. 그 외 사안은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중앙 및 각 부처간 긴밀한 협의와 장기적으로 예산확보방안 수립 등으로 실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2) 문화일류도시 서울

위의 강북부활 프로젝트가 시설회복의 물리적 측면이 강한 반면 이는 운영과 환경조성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성격이 강한 내용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4개 공약사항에 2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발전 관련 사항으로 북촌마을복원과 관련하여 다소의 민원, 정책의 중복성은 없지 않으나 일관성 및 지속성, 투자예산 및 전담조직이 필요하며, 돈의문의 복원은 사적지정 및 국고확보 방안이 내재하고 있다. 정부청사 및 기관 부지 이전적지의 역사문화 복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되어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풀어야할 사안이다. 또 학교경계부의 지역커뮤니티 시설 설립은 교육청 등 타부서와의 협조가 우선이나 교육환경 저해문제와 연관되어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교육환경적 커뮤니티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사안은 즉시실천, 임기내 착수완료, 임기내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3) 환경일류도시 서울

14개 공약에 3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본 사안은 오염·공해해소와 관련된 항목으로 열린공간 창출로 위해환경으로부터 안전, 대중교통에 초점을 맞춘 공해저감방안, 수돗물과 관련 원수확보, 녹색교통으로 자전거 활성화, 가로숲 조성, 환경용량 총량제, 저공해차량운행 방안, 미세먼지제거 방안, 청정에너지 관련 등으로 전술한 바와 같다. 여기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과 같이 중앙부서 및 국회에서 법률개정 추진 중이므로 이와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용량 총량제는 강제시행규정이 없으며, 한강관련 사항은 관련 법규내에서 가능하며, 오염심한지역의 차량진입 제한과 교통환경부담금 부과 등은 관계법의 개정과 여건조성으로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된다. 또 청정에너지 차량으로의 교체와 공해저감장치 부착 등은 충전소 확보문제, 차량소유자의 자발적 참여유도 필요한 것으로 이는 G/B지역활용, 자발적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 교통수요관리는 수도권외의 공동 대응방안이 필요하며 기타사안은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법률적 검토가 이뤄진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즉시실천, 임기내 착수완료, 임기내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4) 투명행정 일류도시 서울

전술한 바와 같이 8개 공약에 17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본 사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로 부정부패방지와 이에 대한 대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다소의 인원 증원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책, 중앙정부와의 중복성, 법률제정 등 행정환경의 종합적인 검토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 2) 열린 서울 만들기

### (1) 시민에게 열린 공간 만들기

열린 공원 만들기로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 창출을 위한 내용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3개 공약에 9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 대공

원 무료개방은 서울시의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수익시설 도입으로 감소액 보완이 가능하며, 한강접근로의 다양한 구성은 한강제방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강의 권역별 테마계획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성이 가능하나 중앙부서의 하천점용 허가승인이 요망된다. 그 외 사안은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법률적 검토가 이뤄진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 (2) 균형발전으로 강남·북이 열린 서울

지역별 특성화에 따른 중점사업 육성에 초점을 둔 본 사안은 전술한 바와 같이 13개 공약에 35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은 교육환경 저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으나 이는 교육적 관점을 우선 시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자사고, 공립고등의 사안은 교육부와의 마찰이 예견된다. 또 뉴타운 및 강북활성화는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실천 방안이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할 수도 있다. 기타 사안은 조례개정과 정치적으로 해결책 등이 필요한 사안이 있으나 목표설정, 내용 등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 (3) 교류와 협력으로 지방에 열린 서울

사업 성격 상 수도권의 상호 지자체간 연계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안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5개 공약에 1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광역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쓰레기, 자원회수시설, 혐오시설의 공동건설 및 공동이용 추진이 대표적인데, 교통관련 사안은 수도권 교통조합의 활성화로 대체가 가능하고, 혐오시설 관련 사안은 당해 지자체간의 민원, 재정상태 등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자정부의 이양은 지적소유권의 법적 검토가 요망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는 수도권 지자체의 합의점 도출의 선행과 당위성과 대체입법의 객관성 확보가 요망된다.

#### (4) 동아시아에서 세계로 열린 서울

서울의 역사성과 관광문화관련 산업을 특화하여 세계화에 대비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13개 공약에 2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위의 각종 사안과 중복성이 있으나 그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동소이하다. 성곽복원 등은 문화재 복원계획과 상충이 우려되나 상호 협의로 조정이 가능하며, 지식산업의 법률적 지원은 변호사나 변리사의 영역침해 소지가 있으나 이들을 전담제 등의 구성원으로 하여 지원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되며, 기타 사안은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으로 실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꿈과 희망의 서울

#### (1)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

수돗물과 관련하여 깨끗한 상수원 확보, 치안 등 외부로 부터의 안전 문제, 삶의 질 차원에서 제안된 사안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3개 공약에 17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깨끗한 상수원 확보문제는 관련 지자체 주민들의 민원, 예산확보 등으로 관할 중앙 부서의 설득문제가 예상되며, 기타 사안은 내부적 조율, 중앙부서와의 협조 등으로 실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견된다.

#### (2) 대중교통 중심의 다양한 교통 서비스

서울의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9개 공약에 18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최근 서울시의 대중교통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미시적 문제점은 관련부서의 상호 조율과 법률적 개정이 다소 필요한 것이 있으나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된다.

#### (3)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술한 바와 같이 24개 6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사안은 여성/보육 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사안, 방가 후 아동보호 및 교육시스템, 노

인복지문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복지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각 사안별로 검토 결과 소요예산 확보 문제와 시설 활용 문제가 내재하고 있으나 자치구 등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 5. 맺는 말

민선4기의 지자체 단체장을 선출한 지난 5·31지방선거는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존의 네거티브 선거풍토에 일대 혁신적 변화를 시도한 매니페스토운동이란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였으며 이는 향후 우리나라 선거풍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민선4기 공약사항을 보면 11개 분야에 101개 공약사항으로 총265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 되었다. 이의 유형을 실천적 관점에서 보면 즉시실천 타입Ⅰ(68개 단위사업), 년내 착수 타입Ⅱ(26개 단위사업), 임기내 착수·완료 타입Ⅲ(108개 단위사업), 임기내 착수 타입Ⅳ(58개 단위사업), 장기 검토 타입Ⅴ(5개 단위사업)으로 구분된다. 이를 부문별로 분류하면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세계일류 도시 서울, 열린 서울 만들기, 꿈과 희망의 서울 등 크게 세가지 부문이며 이들은 각각의 구체적인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의 분석과정을 통해 볼 때 서울시의 민선4기 서울 시정방향은 서울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의 서울'을 줄 수 있는 복지부문에 역점을 두고 세계일류 도시 서울을 지향하며 내적으로는 열린 서울 만드는 등 상호보완적인 위계를 감안한 내실 있는 시정을 추구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환경오염의 개선과 역사·문화환경 조성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는 서울적인 상황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그 실현성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서울시 민선4기 공약사항 검토결과,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사항은 예전과 같이 민심선동의 구호적 이슈는 없으며, 단지 예산의 단계적 확보 방안과 상·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법률적 개정사안이 다소 있으나 매니페스토차원의 실천적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평가하는 사람들의 입장 차이와 처한 상황에 따라 다

를 수도 있으며 이를 객관화하는 데는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다. 또 후보 개인의 역량이나 도덕성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고 정책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매니페스토운동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참고자료

1. 서울특별시, 민선4기 공약사항 검토보고 자료, 2006. 6.
2. 민선4기 서울시장 직무인수위원회 제출 자료.
3.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장 당선자 관련 기사 내용 등.